

June 18, 2025

Novelis

노벨리스-동아오츠카-동아에코팩-경상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협약

- APEC 2025 KOREA 공식 협찬 캔워터 ‘THE 마신다’,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제작 공급... 자원순환 문화 정착 위해 공동 협력
- “노벨리스, 알루미늄 재활용 통해 지속가능성 증진에 핵심 역할 수행할 것”

2025년 6월 19일 – 지속가능한 알루미늄 솔루션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압연 및 재활용 기업 노벨리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동아오츠카·동아에코팩과 ‘상호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4자 협약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경상북도와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민간 기업들이 함께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8일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부지사를 비롯해 박종화 노벨리스 코리아 대표, 박철호 동아오츠카 대표, 안철수 동아에코팩 부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다자간 협약을 통해 노벨리스 코리아 등 민간기업들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이들 기업이 도내 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노벨리스와 동아오츠카는 재활용 알루미늄 사용 확대와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아오츠카는 APEC 2025 KOREA 기간 중 알루미늄 캔에 담은 먹는 샘물 ‘THE 마신다’를 공식 협찬제품으로 공급한다. ‘THE 마신다’는 노벨리스 영주 재활용·압연공장에서 생산한 재생원료 함량이 높은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된다. 양사는 지난달 26일 관련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THE 마신다’를 통해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해 알리고 있다.

박종화 노벨리스 코리아 대표는 “민간기업이 지방정부와 함께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벨리스 코리아는 알루미늄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 증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부지사는 “경북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에 지역 대표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해

주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시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벨리스는 재활용 알루미늄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알루미늄 재활용은 보크사이트 광석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95%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95% 적어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알루미늄 캔을 다시 캔으로 재활용하는 ‘캔-투-캔(Can to Can)’ 재활용 방식을 통해 폐 캔을 무한 반복해 새 캔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자원순환과 순환경제 구축에 효과적이다. 노벨리스는 알루미늄 재활용을 통한 저탄소 알루미늄 공급을 늘리고자 최근 일본 고베제강과의 합작법인인 울산알루미늄에 6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울산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 가동을 시작했다. 경북 영주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알루미늄 음료캔 재활용 시설도 운영 중이다.

###

노벨리스 소개

노벨리스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든다는 기업 목적을 표방합니다. 노벨리스는 혁신적인 알루미늄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세계 최대 알루미늄 재활용 기업입니다. 또 저탄소, 지속 가능한 알루미늄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서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지역에서 항공우주, 자동차, 음료 캔, 스페셜티 제품 산업의 고객 및 공급업체들과 협력해 완전한 순환경제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 회계연도에 노벨리스는 약 171억 달러의 순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노벨리스는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 아디트야 비를라 그룹(Aditya Birla Group)의 알루미늄, 구리, 금속 부문 주력 기업인 힌달코 인더스트리즈(Hindalco Industries Limited)의 자회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noveli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 정보

노벨리스의 의도, 기대, 예측을 기술하고 있는 본 보도자료상의 정보는 증권법 규정에 의한 추정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정 정보를 담은 진술에는 “믿는다”, “기대한다”, “예상한다”, “계획한다”, “추정한다”, “전망한다”, “예측한다”, 등의 단어가 포함됩니다. 추정 정보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노벨리스는 새로운 정보, 미래의 사건 등 사유를 불문하고 추정 정보를 업데이트할 의도가 없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리스크 요인들은 2025년 3월 31일로 종료된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0-K 연례보고서상의 ‘리스크 요인’ 섹션에 기술되어 있으며, 10-Q 노벨리스 분기 보고서 또는 비정기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수 있습니다.